

환경부, 배출허용총량 효율관리지침 배포

사업장별 여건에 적합한 오염물질 감축전략 수립 방법이 제시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허용총량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장의 감축전략 수립방법 및 시설별 오염물질 감축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총량제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5월8일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시설별 특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감축방안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총량제 대응현황 및 시설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높은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대안 선택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침서는 총량관리 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행정절차와 사업장의 감축전략 수립사례 및 시설운영 성공·실패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감축방법 선택을 위한 비용분석 방법, 사업장의 시설 적정 운영방안 및 연료전환시 고려사항,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운영시 고려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기술적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부터 수도권 1종 사업장 중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설 및 공정개선, 연료전환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침서는 2008년부터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해야 하는 총량제 적용 사업장(115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또는 대기방지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5/09>